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내가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자.
-법구경-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6월 21일 수요일(주간) 제275호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에 모든 것 책임 성심껏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 이용자가 1천5백만명을 돌파했다. 각 사이트들마다 회원 몇십만명 돌파, 접속자 수 몇백만명 돌파를 들고 나서며 눈길 끌기에 여념이 없다. 인터넷 보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인터넷 이용자 수에 대한 통계가 부정확하며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상당한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인터넷 이용자의 정확한 정의나 측정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업체간의 가입자 수 경쟁 등 관련 사업의 이해관계로 실제보다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 수보다는 각 회원당 방문횟수를 늘리기 위한 작전에 몰두하고 있다. 즉 손님보다는 단골고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단골손님으로 끌어들여야 지속적인 매출과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전자 사이트에서는 컴퓨터 오디오 합체형 모델 아지트를 출시하고 삼성전자 사이트에서 아지트 사진 조각을 모아 사진을 완성하면 추첨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이를 위해 접속자들이 사이트 곳곳을 서핑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단골네티즌 확보

현재 인터넷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과 직장인들은 인터넷을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이다. 별다른 비용 지출 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이들이 초기 인터넷 이용자 확대에 기여했다. 만약 이들에 대한 인터넷 보급이 끝난 시점에서도 인터넷 이용 비용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상당기간 인터넷 이용자수가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일정한 사용자를 놓고 각 사이트들간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불교계에서도 쇼핑몰 등의 운영자들은 단골손님을 확보하고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 현재의 상황에서 인터넷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휴전선에 위령탑·통일원찰 건립 상처치유 불교앞장"

정상회담 성공 회향…종교 교류 활성 예상

영통사·신계사 공동복원 가능성 커져

남북의 화해·협력·교류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문' 4항에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님과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보고 가서 불공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16일 밝힘에 따라 남북 불교교류 또한 이전보다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씻어내는 데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는 "과거 전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천도재를 남북 불교도가 함께 휴전선에서 봉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나쁜 인연을 씻어내고 새 인연을 만드는 일에 불교인들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을 화해와 상생의 발원지로 만들기 위해 위령탑과 통일원찰을 건립해 희생영령을 모시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재일본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와 조총련계인 조선불교협회는 2차대전 희생자 유골을 한반도에 안치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류 분야의 다양화도 과제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도각스님은 "이후 당국간 협력이 확대되면서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온 민간교류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건·복지 등으로 불교교류 분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7·8면

또 조불련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유물총국, 아·태평화위원회 등과의 접촉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회향됨에 따라 남북불교 8·15 합동법회, 영통사 신계사 공동복원, DMZ 내 폐사지 공동조사 등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진각종 방북단은 7월초 평양을 방문, 남북불교 학술세미나 개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도 8·15 남북합동법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조불련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한민족 相生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직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맞잡은 손을 들어 올려 한민족의 상생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알렸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남북공동선언 환영"

종단·단체 잇달아 논평

6·15 남북공동선언문 발표와 관련,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과 통일정진불교연대, 전국불교운동연합, 실천승가회, 불교장기수후원회 등 불교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발표하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환영했다.

조계·태고·천태·진각종은 논평에서 "남북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한 것에 지지를 보내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이어지고 이번 선언이 남북 불교문화의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민족이 하나 되는 결실로 회향되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통일정진불교연대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지엿 놓치기 쉬운 북한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민중의 피해와 탈북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공원입장료 인상 반대"

조계종 관람료위원회

조계종은 관람료위원회와 관람료사찰 주지 연석회의를 13일 불교회관에서 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조 요청한 공원입장료 인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석회의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이 종단의 기본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따라서 공원공단에서 공원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원공단에서 공원입장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문화재관람료도 동일 비율로 인상하기로 했다.

공원공단은 10일 현재 1000원인 공원입장료를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공원입장료 조정에 조계종의 협조를 요청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또 관람료위원회 위원장에 지명스님(법주사 주지)을 선출했으며, 참여연대의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에 대해서는 전체 관람료 사찰이 합심하여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달라이 라마 11월 중순 방한"

방한준비위 인도 다람살라서 초청장 직접 전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1월 중순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이 라마는 14일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망명정부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원회(이하 방한준비위)'로부터 초청장을 받는 자리에서 "하루빨리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 인터뷰 4면)

달라이 라마는 방한준비위 방문단(단장 여연)의 예방을 받고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면서 "남북한 정상들이 인내와 결단력, 전체적인 안목에서 대화를 지속한다면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서울 아셈 2000 회의가 끝나는 11월 중순(16~20일경) 성사될 전망이며 불교계는 물론 종교, 시민 단체의 공동행사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초청장은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불교계의 일면 조계종 교육원장·정련 포교원장·법등 종회의장 스님, 개신교의 강원룡·김홍완 목사, 원불교의 조정근 교정원장, 유교의 최창규 성균관장, 천도교의 김광욱 교령,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종교·시민단체 대표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인도 다람살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 20~22일

에버랜드·용주사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알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3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0년 7월20일(목)~22일(토)
2박3일(사찰 1박, 에버랜드 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목아박물관,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50명)
◇참 가 비 : 6만원
◇문 의 : 전화 080-717-0114, 011-317-2555
◇은행계좌 : 농협 100030-52-039999 (예금주 : 이성훈)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선재이벤트
· 후원 :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조계사·한마음선원·봉은사·삼보사·보덕학회·(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불자님들이 내시는 구독료
'불국토'로 가꾸는 밑거름
▶편리한 자동이체를 이용하십시오.
▶자동이체 문의 전화 (02)737-0090

게놈 프로젝트와 불교생명관 6면

6·25 50주년 특집 전화속 사찰지킨 호법신장 14면

동화로 만나는 푸른 자연의 친구들

창비아동문고 166
풀꽃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상권 생태 동화집/정수영 그림
모든 풀꽃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애기똥풀, 씀바귀, 제비꼴…… 어떻게 이런 재미있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풀꽃들과 무엇을 하고 노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값 6,000원

창비아동문고 161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
이상권 생태 동화집/장양선 그림
물귀신 소동을 일으킨 수달, 고양이 잡을 먹고 지란 다람쥐, 청둥오리와 결혼한 집오리 등 흥미롭고 감동적인 우리 나라 야생 동물 이야기가 한가득 펼쳐집니다.
값 6,000원
● 어린이도서연구회 선정 과학의 달 추천도서
● 중앙일보 선정 '98 좋은 책 100선

(주)창작과비평사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gbi.com

완역
창비아동문고 164·165
삐노끼오의 모험 1, 2
까를로 꼴로디 지음/이현경 옮김

말썽꾸러기 삐노끼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형극을 보러 갔다가 땔감이 될 뻔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다 당나귀로 변하고, 상어 뱃속에 갇히기까지 하는 삐노끼오. 우리 친구 삐노끼오가 들려주는 모험의 세계에 귀 기울여 보세요.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권장도서(아동부문)
값 각권 6,000원
(주)창작과비평사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gbi.com